



numbers

vol. 236

인공지능이 가져올 우리 삶의 변화
목사 역할, 인공지능이 잘할 것 30% vs 인간이 잘할 것 53%!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서울 청소년의 가치관
- ② 해외 한류 실태와 인식

2024. 4. 16.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목사 역할, 인공지능이 잘할 것 30% vs 인간이 잘할 것 53%!

인공지능은 간단하게는 '번역'부터, 음성을 인식하여 결과를 안내하거나 수행하는 '음성인식 시스템', 대화로 글, 이미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시스템', 이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를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 등 이미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증가했으며 이미 전년 영업이익을 넘어선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OpenAI(미, 인공지능 연구소)와 META(미, IT기업)는 추론과 계획이 가능한 새 AI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향후 2년 이내에 AI가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와 각자의 삶에 미칠 변화와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 예상되며,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국민/개신교인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증권가 예상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경우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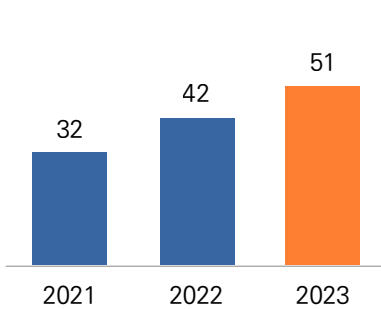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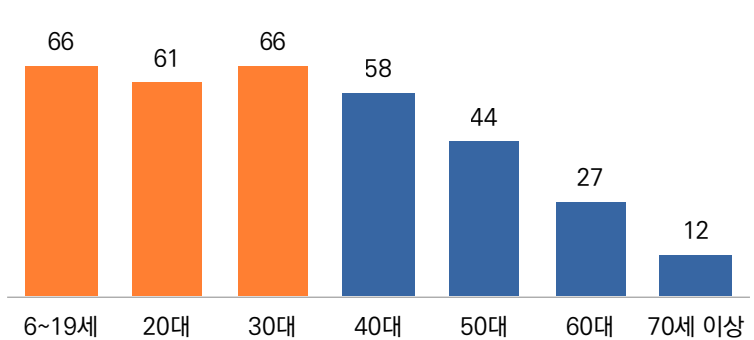
[인공지능 이용 실태] 전 국민의 절반, 일상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

- 우리 국민은 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 경험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의 경험률은 51%로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했다.
- 연령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사용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30대 이하의 경험률은 60% 이상이었다.

[그림]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률 변화 (일반 국민, %)



[그림] 연령별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률 (일반 국민,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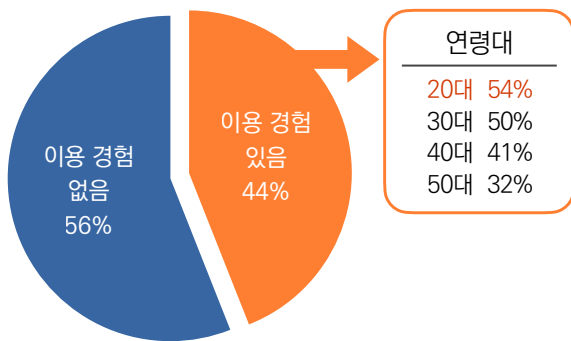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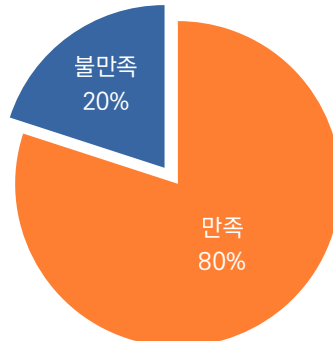
챗GPT 사용 경험자 대부분, '결과에 만족스러워'!

- 2022년 말,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인 OpenAI가 개발한 챗GPT는 출시 두 달 만인 2023년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이후 인간의 질문에 답을 찾아 보여주고 요구사항에 맞는 글을 작성해 주는 챗GPT뿐만 아니라 시, 그림, 동영상, 음악 등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의 사용 경험률은 2023년 7월 조사 기준으로 44%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용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챗GPT의 사용 만족도는 80%로 대부분의 경험자가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림] 챗GPT 사용 경험률 (일반 국민)



[그림] 챗GPT 사용 만족도** (챗GPT 사용 경험자)



※출처 : 트렌드모니터, "챗GPT 시대의 도래, 기존의 일자리 '진짜' 대체될까?", 2023.07. (전국 만19~59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6.-07.10.)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 지난 30일 동안 서비스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한 사용자 수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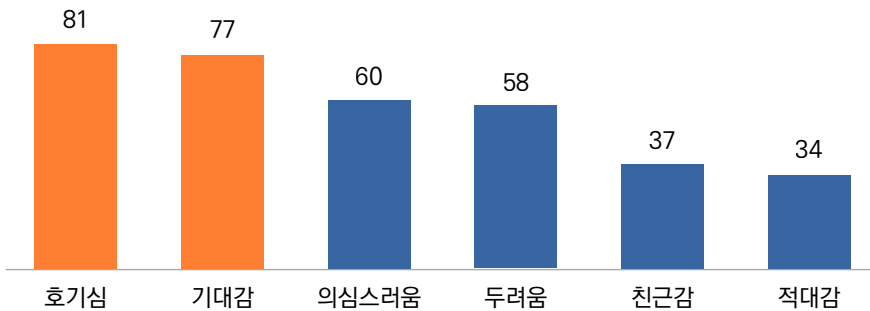
02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인공지능에 대한 느낌, 의심·두려움보다는 호기심·기대감 더 커

-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호기심’과 ‘기대감’ 등 비교적 긍정적인 감정이 각각 81%, 77%로 높게 나타났고, ‘의심스러움(60%)’, ‘두려움(58%)’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절반 이상으로 응답했다.
- 반면, ‘친근감(37%)’과 ‘적대감(34%)’을 느낀다는 인식은 다른 감정 대비 낮았다. 호기심과 기대는 있지만 친근한 감정을 느낄 정도는 아니며, 두렵고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적대할 정도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의식으로 해석된다.

[그림]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 (일반 국민, '매우+어느 정도 느낀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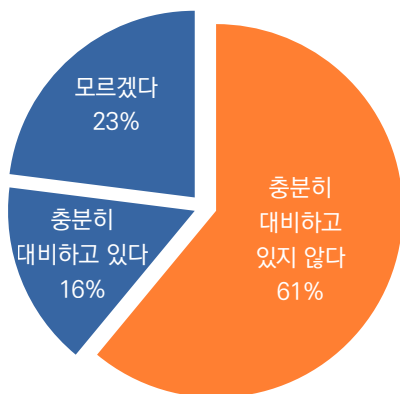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인공지능, 양날의 검? - 발전 체감도와 미래 변화 예측', 2023.06.06.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웹조사, 2023.04.21.~04.24.)

*4점 척도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비, 충분하지 못 해 61%!

-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까?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6%에 그친 반면,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61%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가 아직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에 대한 충분한 대비 정도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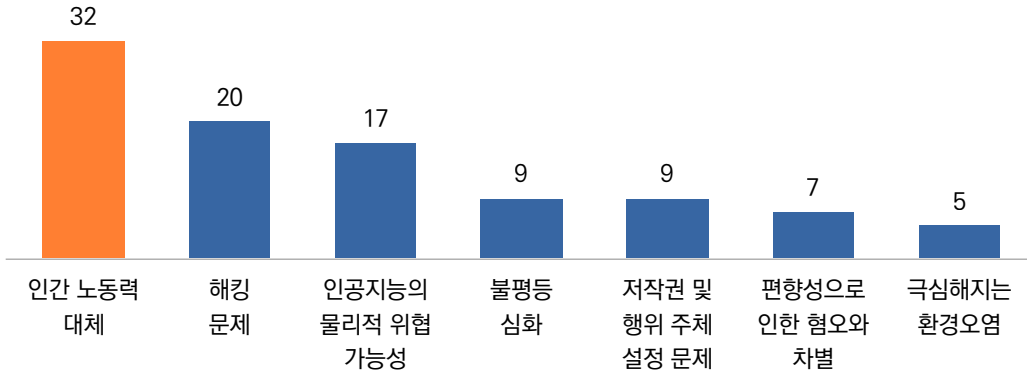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대하나', 2024.01.23.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웹조사, 2023.11.10.~11.13.)

인공지능시대,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할 문제, ‘인간 노동력 대체’!

-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회가 가장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인간 노동력 대체’를 32%로 가장 많이 꼽아 직업을 인공지능에 빼앗길 수 있다는 높은 우려감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킹 문제’ 20%, ‘인공지능의 물리적 위협 가능성’ 17%, ‘불평등 심화’ 9%, ‘저작권 및 행위 주체 설정 문제’ 9%, ‘편향성으로 인한 혐오와 차별’ 7%, ‘극심해지는 환경오염’ 5% 등의 순이었다.

[그림] 인공지능 시대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하는 문제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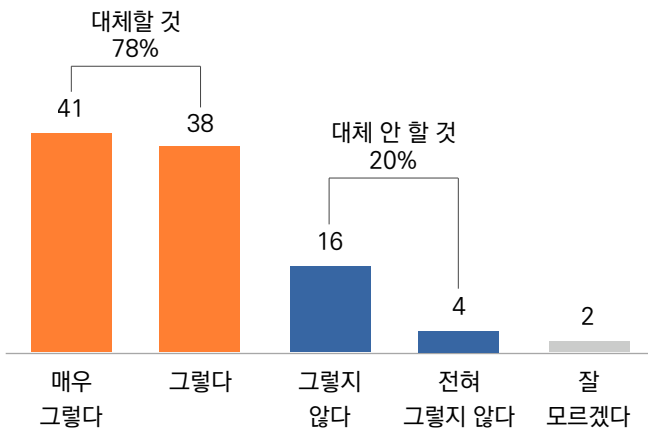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대하나’, 2024.01.23.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웹조사, 2023.11.10.~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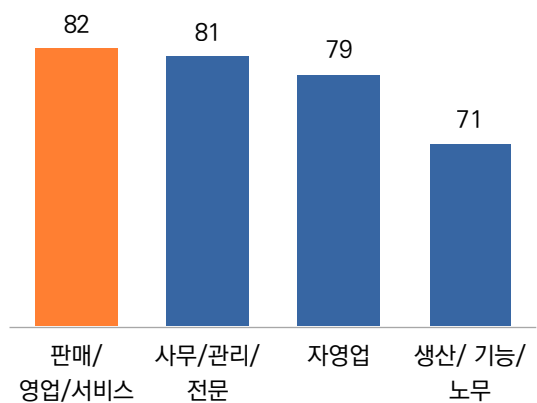
경제 활동자 10명 중 8명, ‘인공지능이 나의 일자리 대체할 것’!

- 인공지능의 노동력 대체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인공지능이 향후 ‘본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8%인 10명 중 8명이 ‘대체할 것(매우+약간 그렇다)’이란 인식을 보였고, 이중 ‘매우 그렇다’는 인식이 41%나 되었다.
- 직업별로 살펴보면 ‘판매/영업/서비스’,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 등 전 직종에서 70%대 이상이 인공지능이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림] 인공지능의 본인 일자리 대체 가능성 (경제 활동자, %)



[그림] 직업별 인공지능의 본인 일자리 대체 가능성 (경제 활동자, ‘대체할 것’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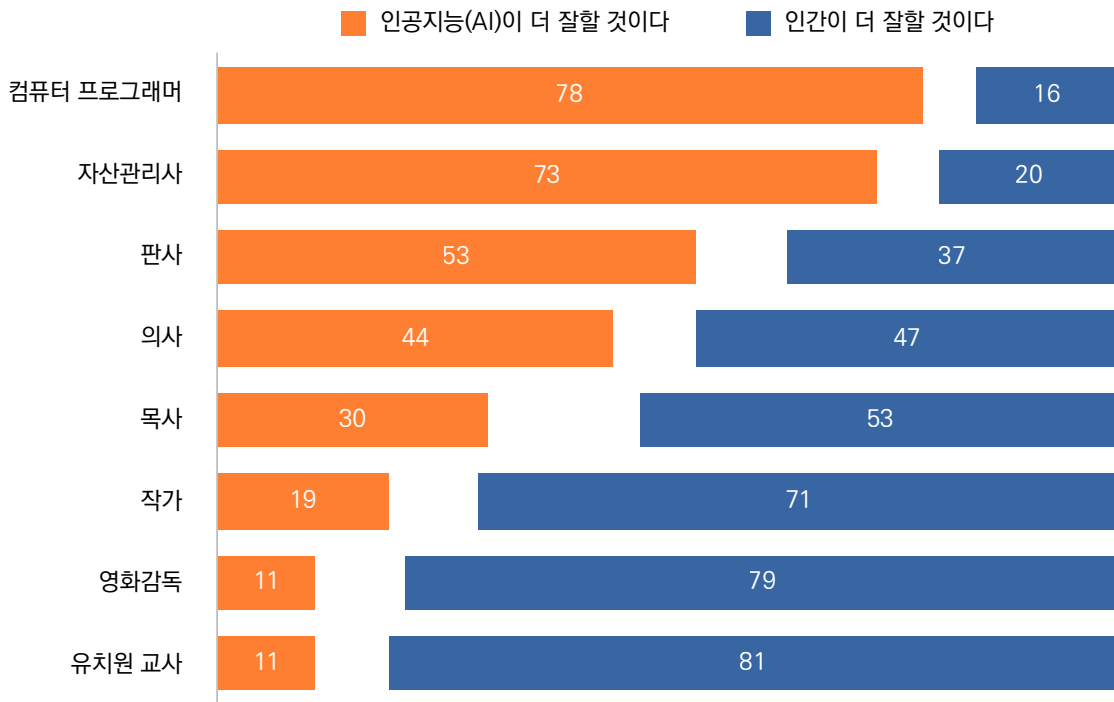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대하나’, 2024.01.23.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웹조사, 2023.11.10.~11.13.)

*4점 척도

목사 역할, 인공지능이 잘할 것 30% vs 인간이 잘할 것 53%

- 다양한 직업을 제시하고, 인공지능과 인간 중 어느 쪽이 해당 직업에 대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직업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78%, ‘자산관리사’ 73%, ‘판사’ 53% 등 대체로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판단이 중시되는 직업군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우세를 예측했다.
- 반면 인간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것으로 본 직업은 ‘유치원 교사’ 81%, ‘영화감독’ 79%, ‘작가’ 71%, ‘목사’ 53% 등으로 주로 창의력, 돌봄 및 공감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역할 수행 인식: 인공지능 vs 인간 (일반 국민, %)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주요 영역별 인공지능(AI) 발전 평가 및 직업 수행 전망', 2023.05.23.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웹조사, 2023.04.21.~04.2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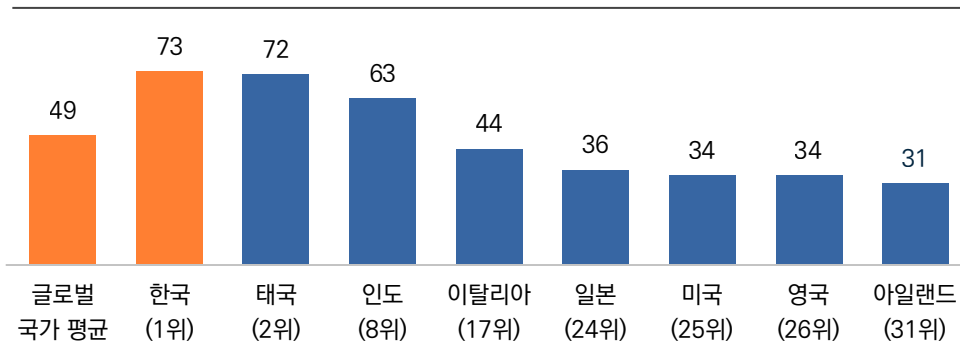
[인공지능 인식 글로벌 비교]

인공지능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한국이 세계 1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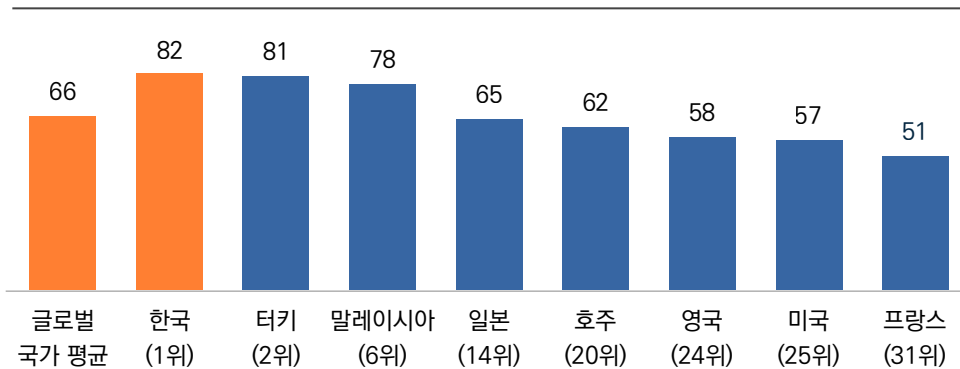
-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입소스에서 세계 31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지능 인식 조사를 통해 AI가 우리 삶 전반에 미칠 영향력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 인공지능이 과거 3~5년간 나의 삶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3~5년간 나의 삶에 미칠 영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관해 물어본 결과, 글로벌 평균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지난 3~5년간 나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다'에 동의한 비율은 49%, '앞으로 3~5년간 나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에 동의한 비율은 66%였다. 과거에도 AI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지만, 향후 인공지능의 일상생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한국은 과거(73%)와 현재(82%) 모두 조사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 인공지능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한 국가로 조사됐다.

[그림]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매우+다소 동의함' 비율*, %)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지난 3~5년 동안 나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향후 3~5년 동안 나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출처 : Ipsos, 'GLOBAL VIEWS ON A.I. 2023', 2023.07. (31개국의 75세 미만 성인 22,816명, 온라인 조사, 2023.05.26.~06.09.)

Note) 조사 국가: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웨덴, 태국, 터키, 인도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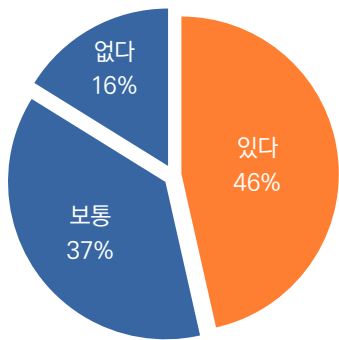
04

[개신교인의 인공지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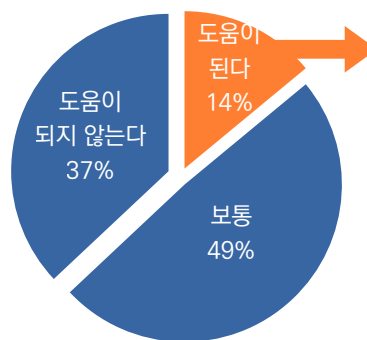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술의 신앙 도움 여부, '도움 된다' 14%에 불과

- 이번에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개신교인들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개신교인들에게 인공지능(챗GPT 등) 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더니 46%가 '있다'고 응답해 그다지 관심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공지능 기술의 신앙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14%) 인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3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인공지능 기술 관심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있을수록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림] 인공지능 기술 관심도* (개신교인)



[그림] 인공지능 기술의 신앙 도움 정도* (개신교인)



인공지능 기술 관심 여부	
있다	25%
없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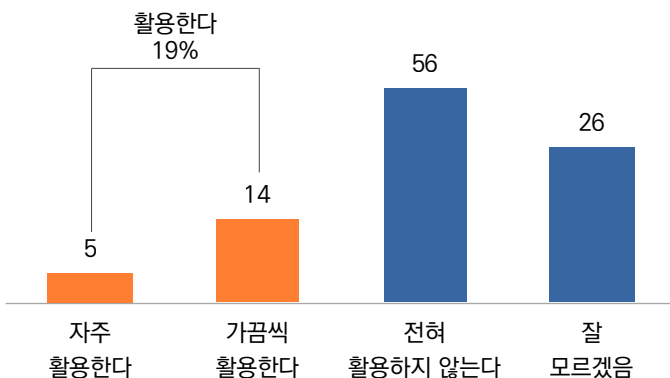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보고서', 2023.10.16.(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9.15.-09.27.)

*5점 척도

우리교회, '인공지능 기술 활용하고 있다', 19%!

- 그렇다면 현재 교인이 생각하는 출석교회의 인공지능(챗GPT 등) 기술 활용은 어느 정도일까?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가 56%로 절반 이상이었고, '가끔씩 활용한다' 14%, '자주 활용한다' 5%로 나타났다. '가끔' 또는 '자주' 활용한다는 비율은 19%에 불과해 인공지능 기술의 교회 활용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었다.

[그림] 출석교회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정도 (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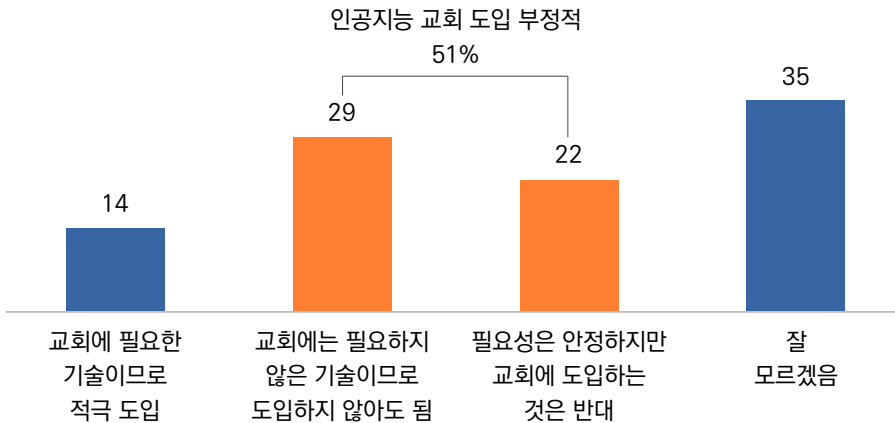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보고서', 2023.10.16.(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9.15.-09.27.)

교인 절반, 교회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부정적

- 인공지능(챗GPT 등) 기술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므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29%,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회에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 22%로 전체 교인의 절반(51%)이 필요 여부와 별개로 도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회에 필요한 기술이므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14%에 그쳤다.
- 다만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입장이 35%로 높게 나온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교회에 미칠 영향을 아직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교회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대한 의견 (교회 출석자, %)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개신교인의 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보고서, 2023.10.16.(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9.15.~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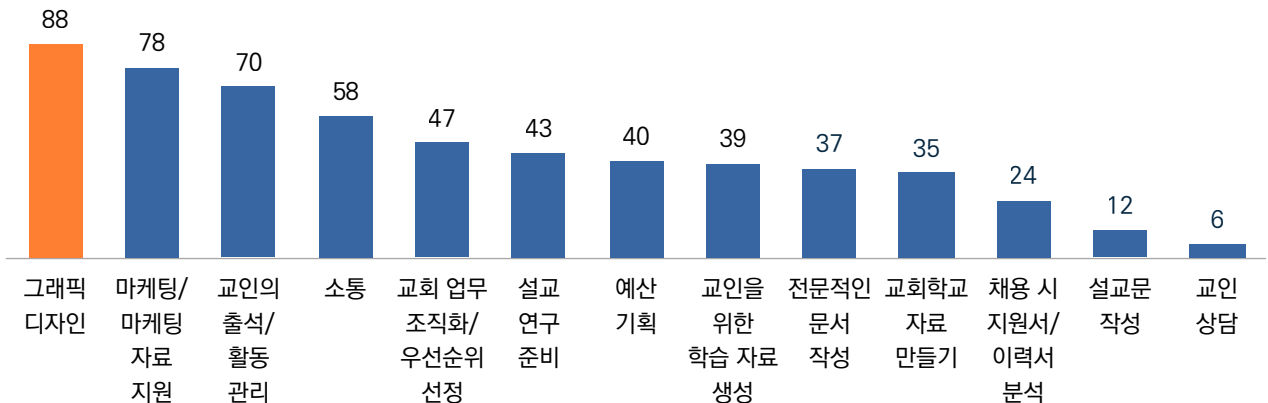
05

[미국 목회자의 인공지능 인식]

미 목회자, 콘텐츠/기획/행정에 인공지능 사용 관철어!

- 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미국 조사 결과가 있어 살펴 본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에게 편하다고 느끼는 인공지능 기술의 교회 적용 범위를 묻은 결과 10명 중 9명(88%)은 ‘그래픽 디자인’ 영역 내에서 AI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78%가 ‘마케팅/마케팅 자료 지원’ 기술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반면 ‘설교문 작성(12%)’과 ‘교인 상담(6%)’ 등 영적이고 관계적인 용도로는 인공지능 사용을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회 적용 범위 (미국 개신교 목회자, 중복응답, %)



※출처 : Barna, 'Three Takeaways on How Pastors Can Use AI', 2024.02.22. (미국 개신교 담임목사 278명, 온라인 패널 조사, 2024.01.03.~01.04.)

문맥을 이해하여, 스스로 학습하며, 창의력까지 발휘하는 데다가 빠르기까지 한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출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잇는 기술 혁신으로 평가되어 인류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기존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도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에 존재하는 일자리 70%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노동 시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25%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¹⁾

이렇듯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와 각자의 삶에 미칠 변화와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 예상되며,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시대에 한국 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로 정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챗GPT에서 'GPT'는 '사전 학습된 자료(Pre-trained)'를 '변형(Transformer)'하여 '생성(Generative)'한다는 뜻이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출처 미상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기독교 핵심 교리를 왜곡하는 이단적인 사상, 불건전한 신학 콘텐츠가 더 많은 빅데이터의 특성상 기본적 사고와 분별력이 없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성경적 진리에서 멀어지고 이단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경적 원칙에 근거하여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냉철하게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만드는 것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겠지만, 교회와 신앙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적 영역이다. 설교나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내면화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효율성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과 공동체성을 약화할 수 있으며 영적인 측면에서 깊은 대화와 상호작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적인 교류와 영적 교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면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역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완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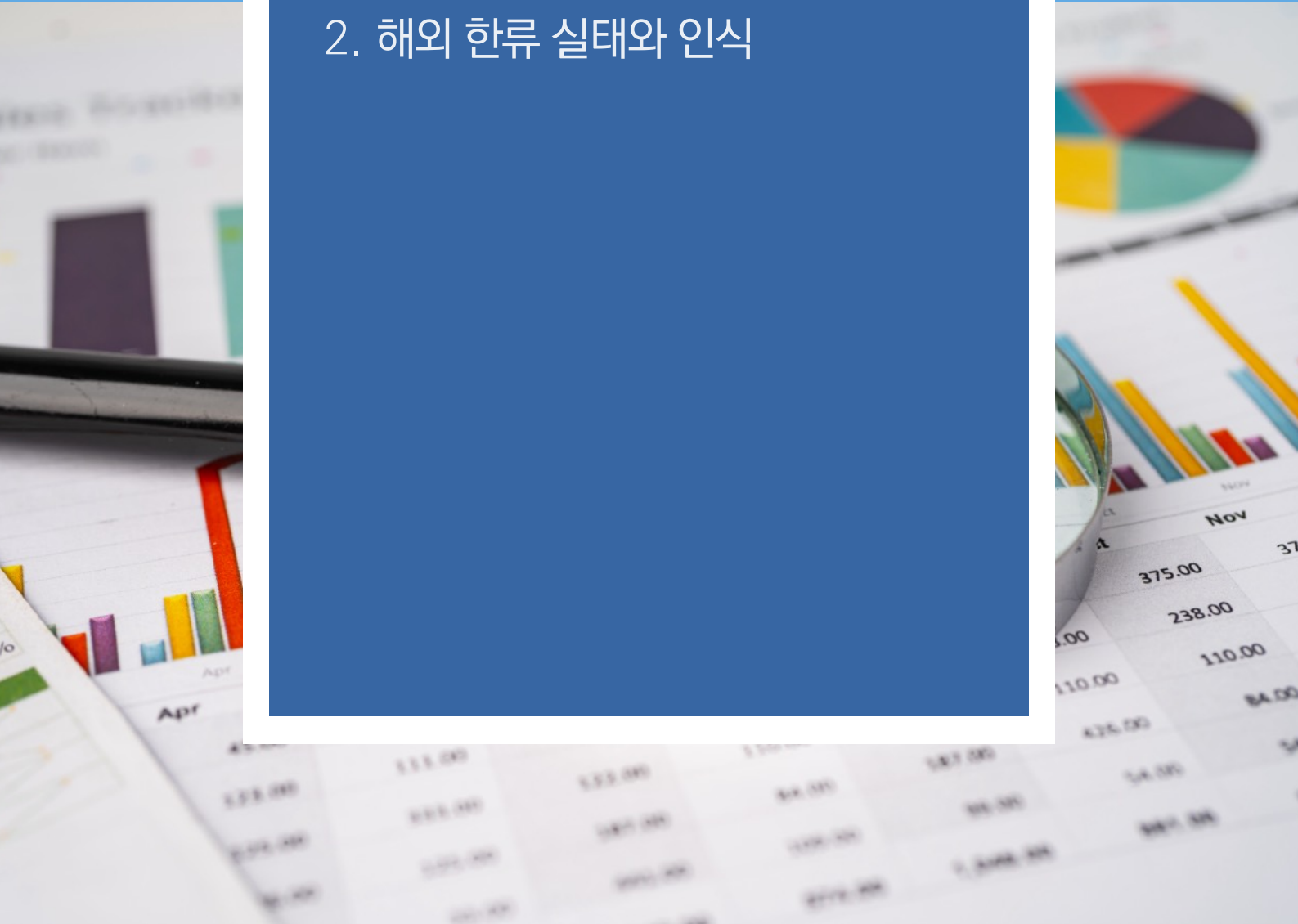
이번 넘버즈에서 나타난 데이터 중 개신교인이 '인공지능 기술이 신앙에 도움 된다'는 인식은 14%에 불과했고, '출석 교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19%에 불과했다. 또한 '교회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대해 51%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교회 같은 영적 영역에 인공지능 같은 기술 도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인 동시에, 한편으로 교회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성공적인 모델과 전문가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교회 적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인공지능 기반 번역 도구는 다양한 언어로 예배와 설교를 제공함으로써 선교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획에 도움받거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인 신앙을 위한 최적화 환경을 제공하여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

교회가 싫든 좋든 간에,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교회 안에서도 일상화될 것이며, 무방비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신앙을 위한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기억하고, 문명의 이기로서 적극 활용은 하되 보조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기독교적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AI 발전에 가장 큰 영향 받는 일자리는 '사무·행정·법률', 한국일보, 2023.03.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813430004654?did=kk>)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서울 청소년의 가치관
2. 해외 한류 실태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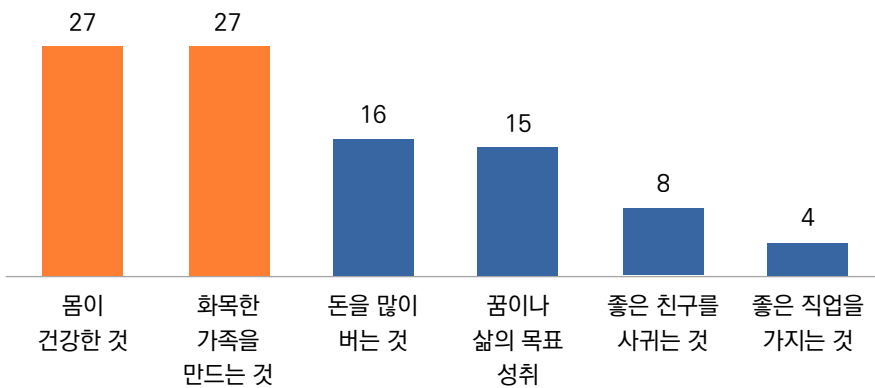


[서울 청소년의 가치관]

청소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건강과 화목한 가정'!

-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서울 학생 가치관 조사를 발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서 '청소년들의 행복조건'과 '삶에 영향을 끼친 대상'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 학생들이 꼽은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몸이 건강한 것'(27%)과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27%)이었다.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16%, '꿈이나 삶의 목표 성취' 15% 등이 뒤를 이었다. 진로 문제(좋은 직업)나 친구 사귀기 등보다 건강과 화목한 가정을 최우선으로 꼽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초5~고2 학생,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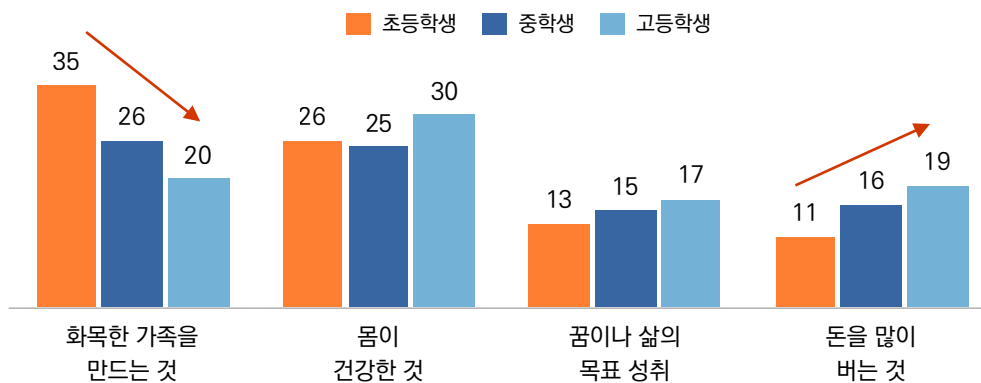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 학생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31. (서울 초5~고2 12,739명, 온라인 조사, 2023.10.23.~10.31.)

행복 조건, 학령 높을수록 '화목한 가정' 줄고, '돈' 더 늘어!

- 청소년들의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학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 1위로 꼽힌 데 반해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응답률은 줄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꿈이나 삶의 목표 성취' 쪽으로 더 기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학령별 행복의 조건 (초5~고2 학생,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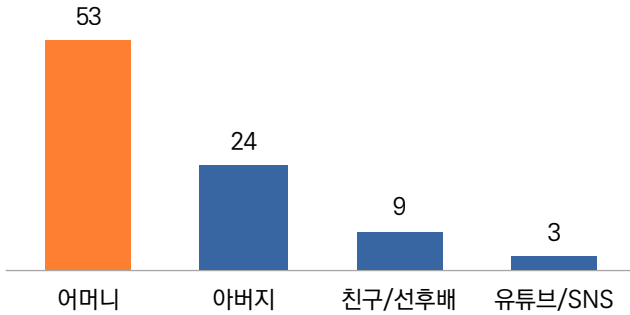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 학생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31. (서울 초5~고2 12,739명, 온라인 조사, 2023.10.23.~10.31.)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 끼친 대상, ‘어머니’가 압도적 1위!

-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나 대상이 누구지 물었더니 ‘어머니’가 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버지’ 24%, ‘친구/선후배’ 9%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기 부모의 영향력,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내 삶에 영향을 준 사람/대상 (초5~고2 학생,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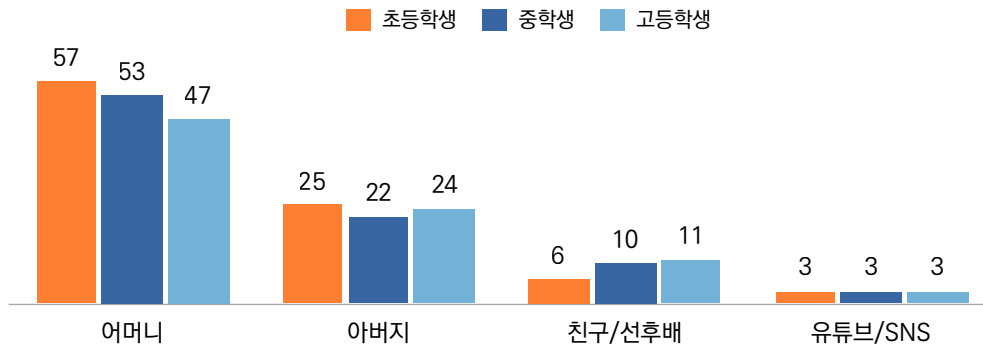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 학생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31. (서울 초5~고2 12,739명, 온라인 조사, 2023.10.23.~10.31.)

학령 높아질수록 ‘어머니’ 영향력 줄고, ‘친구/선후배’ 늘어!

- 내 삶에 영향을 준 사람/대상을 학령별로 살펴본 결과, 초중고생 모두 ‘어머니’가 가장 높았으나, 학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친구/선후배’의 영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학령별 내 삶에 영향을 준 사람/대상 (초5~고2 학생, 상위 4위, %)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 학생 가치관 조사 연구’, 2023.12.31. (서울 초5~고2 12,739명, 온라인 조사, 2023.10.23.~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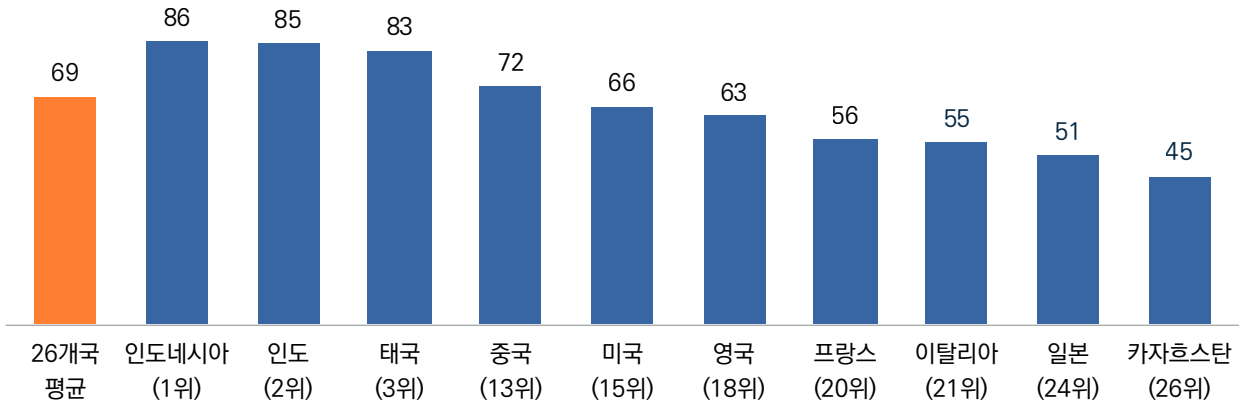


[해외 한류 실태와 인식]

해외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 '한국 문화콘텐츠 마음에 들어!'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주요 국가의 한류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을 2012년부터 조사하고 있는데, 2023년 조사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다. 세계 속 K-문화콘텐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결과를 살펴본다.
- 최근 경험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마음에 든다'고 응답한 비율은 26개국 평균 69%였고, 호감도 상위 1~3위 나라는 인도네시아(86%), 인도(85%), 태국(83%) 등의 순이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그림]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 (해외 26개국 한류 경험자, '매우+약간 마음에 듦' 비율*, %)



※출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2024.03.29. (해외 26개국 만 15~59세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25,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10.~11.30.)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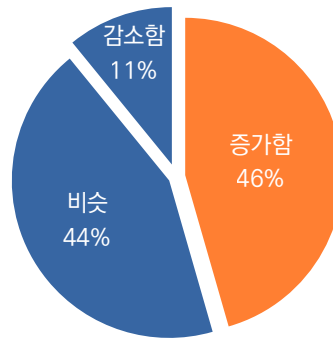
한류 경험자 46%, '한국 문화콘텐츠 관심 증가 中'

- 해외 한류 경험자에게 소비하는 전체(모든 국가) 문화콘텐츠 중 한국 콘텐츠 소비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그 결과, 26개국 평균 소비 비중은 26%로 전체 콘텐츠 4개 중 1개는 한국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셈이다.
- 현재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은 결과, 절반 가까이인 46%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감소했다(11%)는 응답 대비 훨씬 높았다.

[그림]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 (해외 26개국 한류 경험자)



[그림] 한국 문화콘텐츠 관심도 변화** (해외 26개국 한류 경험자, 1년 전 비교 기준)



※출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2024.03.29. (해외 26개국 만 15~59세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25,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1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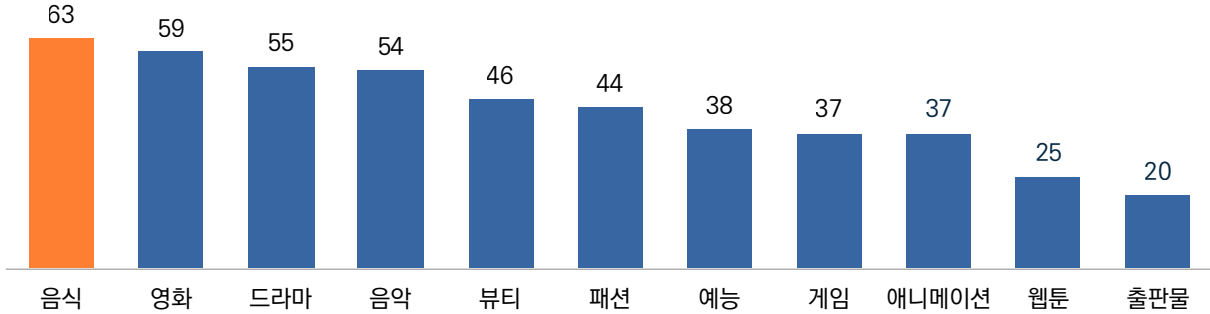
*모든 국가의 문화콘텐츠 소비량 중 한국 콘텐츠 소비 비중

**5점 척도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한류 콘텐츠, K-Food!

- 최근 1년 기준으로 해외 한류 경험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한국 문화콘텐츠는 무엇일까? 1위는 '음식'으로 응답자의 63%가 한국 음식을 먹어본 것으로 나타났고, 2위는 '영화' 59%, 3위는 '드라마' 55%, 4위와 5위는 각각 '음악' 54%, '뷰티' 46% 등의 순이었다.

[그림]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률 (해외 26개국 한류 경험자, 최근 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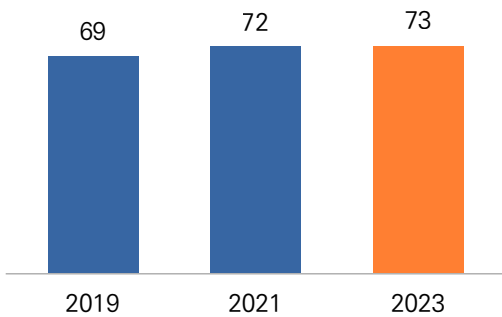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2024.03.29. (해외 26개국 만 15~59세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25,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1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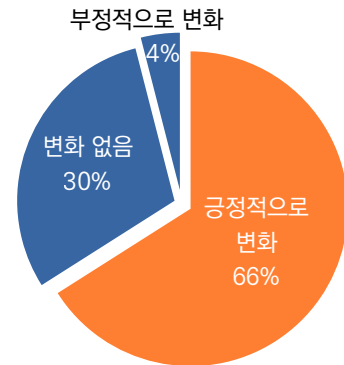
한류 경험자 3명 중 2명, '한국 콘텐츠 때문에 한국 더 좋아져'!

-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19년 69%에서 2023년 73%로 지난 4년간 지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또, 해외에서 한국 문화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비율은 66%로 해외 한류 경험자 3명 중 2명이 한국 문화콘텐츠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게끔 영향을 주었다는 데 동의했다.

[그림]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해외 26개국 한류 경험자, '매우+약간 긍정적' 비율*, %)



[그림]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 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해외 26개국 한류 경험자)



※출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 2024.03.29. (해외 26개국 만 15~59세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25,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10.~11.30.)

*5점 척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4·10 총선\]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연령 56.3세…초선은 135명](#)

연합뉴스_2024.4.11.

[\[22대 총선평가\] 달라진 한국 사회… 권위주의에 대한 분노가 이념·도덕 다 삼켰다](#)

조선일보_2024.4.12.

사회 일반

[5000만이 무너졌다… 작년 내국인 인구 4985만명](#)

조선일보_2024.4.12.

[1월 '극단선택' 사망자 전년대비 32% 급증…“국가적 위기”](#)

동아일보_2024.4.4.

[100명중 성인 3명·청소년 2명 마약 불법 사용 경험있다](#)

중앙일보_2024.4.12.

[건강 상태 인식 - WIN 다국가 조사](#)

한국갤럽_2024.4.11.

[위기의 엔씨소프트, 한국 게임산업의 길은?](#)

시사IN_2024.4.11.

[한달에 9일, 하루 7잔씩 마셨다.... 국내 주류 출고량 8년만에 증가](#)

조선일보_2024.4.8.

[국민 40% 이상 "한국교육 한계점,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벌주의"](#)

연합뉴스_2024.4.12.

[캠핑 열기 뜨겁다…전국 야영장 3천700여개로 '사상 최대'](#)

연합뉴스_2024.4.11.

['인싸'인데 공허한 나… 인맥부자가 대수가 아니다](#)

헬스조선_2024.4.12.

[국민연금 월평균 노령연금액…남성 75만6천원, 여성 39만원](#)

연합뉴스_2024.4.15.

청년 · 청소년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마지막 순간' 미리 정하는 청년들](#)

매일경제_2024.4.12.

[2030대 10명 중 8명, 국민연금 불신…“더 내고 못 받을라”](#)

동아일보_2024.4.1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나랏빚 1126조 '사상 최대'... GDP대비 50%도 뚫렸다](#)

국민일보_2024.4.12.

[청년 고용률 반년 만에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폭 '뚝'](#)

국민일보_2024.4.12.

[전 세계 R&D 투자 상위 2500개 기업 살펴보니...韓 10년새 80→47곳](#)

조선비즈_2024.4.10.

["직장인 9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의"](#)

연합뉴스_2024.4.14.

[수출기업 10곳중 6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내"](#)

문화일보_2024.4.11.

[월화수목休休休, 현실화할까](#)

조선일보_2024.4.15.

[SNS는 회장님들 '자소서'...모범답안은 팀 쿡이다](#)

중앙일보_2024.4.9.

국제 · 환경

["19개국 중 11개국 국민 '강한 지도자'에 부정적...韓 73% 최고"](#)

연합뉴스_2024.4.11.

건강

[당신이 잠든 사이에... '스트레스'가 보인다](#)

동아일보_2024.4.12.

[또 화장실 들락?... '이것'이 알츠하이머 위험 2배 높인다](#)

동아일보_2024.4.12.

기독교 · 종교

[한국교회 첫 이단 규정 표준 기준안 내놨다](#)

더미션(국민일보)_2024.4.12.

[사찰서 솔로 탈출 '나는 절로' 뜨자 교회·성당도 관심](#)

조선일보_2024.4.15.

[성도 10명 중 7명 "신앙 교육 받고 싶다"](#)

더미션(국민일보)_2024.4.11.

[미국 20대 여성들이 교회에 등돌리는 까닭은?](#)

더미션(국민일보)_2024.4.15.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 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범어교회 (담임목사 이지훈), 중동교회 (담임목사 김태형)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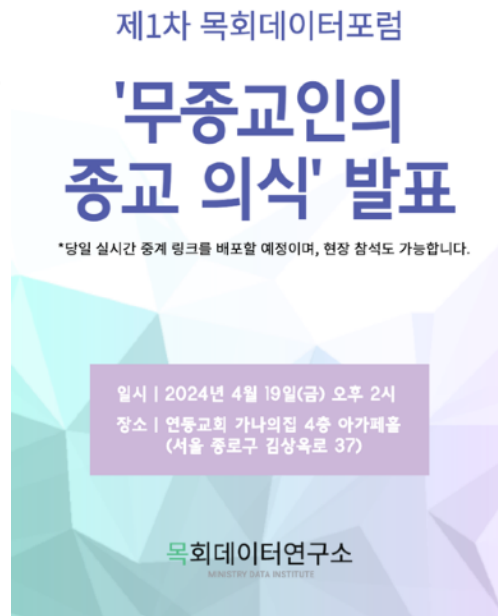
제1차 목회데이터포럼, '무종교인의 종교 의식' 발표

목회데이터포럼은 한국교회에 중요한 이슈를 연구하여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포럼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무종교인의 종교성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 주제 : 무종교인의 종교 의식 연구, **무종교인은 종교와 무관한가?**
- 일시 :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오후 2~3시
-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7)
- 주요 내용

내용	발표자
1. 무종교인의 종교 의식 조사 결과	김진양 부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2. 한국 무종교인의 종교적 특성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3. 무종교인의 종교성에 대한 신학적 응답	김선일 교수 (웨스턴신학대학원대학교)

*당일 실시간 중계 링크를 배포할 예정이며, 현장 참석도 가능합니다.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